# 코로나19 현재 및 향후 중국 정부 대처 방안

(KIC중국, 2021.7.15)

□ 中, 백신 접종 회수 누적 14억 돌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고 코로나19 접종회수는 14억 돌파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지방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각 지방의 백신접종률도 신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경우 7월 13일까지 베이징시 누적 코로나19 접종회수는 3581만 6천에 달하고 누적 접종자 수는 1847만 1천 명에 이른다.

그중에서 1745만 4천 명이 전체 접종 과정을 마쳤고 베이징시 18세 이상 상주 인구의 접종률은 94.86%이고 전과정 접종률은 89.64%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중국 상위권의 하이난성의 경우, 6월말끼지 하이난성의 전과정 2회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수는 680만을 넘었다. 18세 이상 인구에서 2회의 백신 접종률은 88.5%에 달하며 전 인구에서 2회의 백신 접종률은 67.8%에 이른다.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데 중국 역시 성과를 얻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약감국 관리사(国家药监局药品监督管理司) 사장 원림(袁林)에 따르면 현재 국가약감국은 5개 기술을 사용하는 22개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단계에 들고 법률, 규범에 따라 4개 코로나19 백신의 출시를 허가했으며 법에 따라 토론을 통해 3개 코로나19 백신이 긴급사용리스트에 납입했다고 밝혔다.

6월말끼지 국가약감국은 25개 약품(백신을 포함하지 않음)의 코로나19 및 관련 질병 치료제가 입상 단계 진입을 깁급하게 승인했다. 이외에도 특별한 심사 및 평가 절차를 걸쳐 3가지 처방의 출시를 통과했다.

얼마 전에 위건위에 따르면 국가 해당 부서는 이미 3~17세의 인구가 코로나19 불활 백신의 긴급사용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과 해당 연령층의 특징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3~17세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접종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中国新闻网, 2021.7.15.)